

# 익산종합운동장, 육상경기대회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시, 이번 사전대회·전지훈련으로 전국체전 홍보 약 5억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2018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의 메인스타디움으로 사용될 익산종합운동장이 전국 육상경기대회 유치와 육상선수들의 하계전지훈련장 활용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국체전에 앞서 사전대회로 열리는 제39회 전국 시·도 대항 육상경기대회(전문체육)와 제26회 전국마스터육상경기대회(생활체육)는 초·중·고등부·중등부·고등부 체육인들과

대회관계자 등 2,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마라톤과 경보경기, 트랙, 필드 등 육상경기가 열리며, 폭염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기는 아침과 야간 경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전대회를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에 대비한 최종 리허설로 보고 모든 시설을 꼼꼼히 점검,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2018 육상 국가대표후보선수단이 하계전지훈련지로 익산종합운동장을 선정, 2개월 73명의 선수들이 25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익산에 머물며 훈련을 진행하고 동아대학교, 부산체고 등 100여 명 정도가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사전대회와 전지훈련으로 2018 전국(장애인)체전 홍보는 물론이고 약 5억원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도 전국체전담당관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제1종 공인을 받은 익산종합운동장은 체전이 마무리되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전국대회 규모 유치뿐만 아니라 전지훈련지로 활용토록하여 지역 인지도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 익산소방서, 기록적인 폭염에 온열환자 급증

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가 "최근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익산에서 25일 하루동안 온열환자가 3명 발생하는 등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소방서 소재실 방호과장은 "이들 중 두명의 온열환자는 아침 9시경 발에나기 일출후 3시간정도 후에 주변인에게 발견, 신고 됐다"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현장도착 후 의복을 제거하고 아이스팩을 적용하는 등 체온을 낮추며 병원으로 즉각 이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온열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에서는 7월부터 현재 운용중인 8개 구급대에 대해 폭염환자 대응능력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출동태세 완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춘 익산소방서장은 "장시간 더위에 노출된 후 붉은 피부에 땀이 나지 않는 것은 열사병 증상으로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 군산시, 폭염피해 대책 추진 긴급 점검회의 열어

취약계층·축산농가 대상  
폭염대응 대책 점검회  
부족한 부분 보완·지시



군산시는 연일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온열환자 발생 및 가축 폐사 등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25일 이송복 부시장을 비롯한 유관별 피해관련 부서장이 참석해 '폭염대책 추진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폭염 대책을 강구했다.

군산시는 연일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온열환자 발생 및 가축 폐사 등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25일 이송복 부시장을 비롯한 유관별 피해관련 부서장이 참석해 '폭염대책 추진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폭염 대책을 강구했다. 이번 긴급 점검회의에서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취약계층 및 축산농가에 대한 폭염대응 대책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지시하는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이 강조됐다. 시에서는 지난 11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시점부터 신속한 대응과 상황관리를 위해 폭염 피해방지 T/F팀과 무더위쉼터 42개소를 운영 중이며, 전광판 마을방송, 예·경보 및 문자

서비스 등 활용하여 폭염대응 행동요령 홍보 등 현장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주요 이수요양 및 관광자물림포고 설치 ▲버스승강장 열음버치 ▲횡단보도-그늘막 설치 ▲간선도로-살수 등 다양한 폭염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폭염이 장기화

면 어르신 및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우려된다"며 "각종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위주의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폭염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기온이 높은 한낮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폭염 행동요령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기자

### 익산상공회의소 새 회장에 양희준씨 선출

만장일치로... "기업활동 전개 지원"

익산상공회의소 회장에 수석부회장인 (주)세원합성 양희준 회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익산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의를 표명한 (주)하림 이문용 총괄사장을 대신해 전임직원을 수행할 새 회장으로 양희준 부회장을 선출했다. 양희준 회장은 "어려운 때 지역경제를 이끌 익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안 사업을 한층 더 내실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봉사하며 지역기업인들이 편안한 가운데 기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라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장과 기업장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그는 1988년부터 플라스틱 사출성형업체인 (주)세원합성을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일본 오리온전자, 산요전자, SMK 포창 노동부장관상과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중앙대 최고경영자과정과 서울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 등을 이수하면서 최우수상과 최고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학구적인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원만한 성품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열정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 군산시, 사회적 약자 배려 위한 주차장 설치

군산시는 사회적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정을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청사 내 회전로터피에 장애인·임산부·여성배려 주차장을 신설했다. 새로 신설된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8면, 임산부 전용 2면, 여성전용 5면으로 총 15면으로 조성됐다. 그동안 청사 내 임산부·여성전용 주차장이 없어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전용 주차장 15면을 설치해 장애인·임산부 등이 시정을 편하고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배려 주차장을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시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기자

## 군산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전수조사 안전예방교육 추진

군산시는 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사고와 아동학대 사망사고 등 영유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 안전점검에 나섰다.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228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해 아동용 카시트, 유아용 안전벨트, 후방 경보장치, 승강장치 등 설치여부와 보험정보, 통학차량 신고유무, 운전자 및 동승자 교육이수 등 20개 항목을 점검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표준 매뉴얼을 배부하여 숙지하도록 했으며, 차량 운행 종료 후에는 차량 내 영유아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지도 및 위반 시에는 엄중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27일에는 어린이집 시설장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하고자 한다. 또한 시에서는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잡지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는 어린이 통학버스 표준매뉴얼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안



타카운 사고"라며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관련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여 생활화하도록 지도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기자

##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방학동안 영유아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30일부터 8월 3일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방송댄스, 다육이테라피용, 아동요리, 도예, 얼음퍼포먼스 등이 열린다. 또한 영유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동안 부모들은 자개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핸드드립커피 만들기, 메이크업특강, 프랑시스수 등의 무료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영유아, 부모 모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운영, 이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기대된다. 접수는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전화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 p://childare.iksan.gokr) 또는 전화(☎063-859-476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우병희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